소설, 그 이상의 감동과 재미

베스트셀러 원작영화 잇단 개봉

'영화도 보고, 책도 읽고.'

세계적인 베스트셀러를 원작으로 한 영화들이 관객들을 찾아간다.

오는 22일 개봉하는 '더 로드'는 2007년 퓰리처상을 받은 코맥 맥카시의 동명 소설의 원작이다. 아마존과 뉴욕타임즈 베스트셀러 1위에 올랐고, 국내에서도 많은 인기를 모았다.

문학동네에서 발행한 책은 암울하고 다소 무거운 주제에도 불구하고 25만부 가까이 팔려나가며 맥카시 열풍을 주도했다. 최근에는 '모두 다 예쁜 말들'과 함께 일명 '국경 3부작'으로 불리는 '국경을 넘어', '평원의 도시를'이 동시 출간됐다.

맥가시의 소설 '노인을 위한 나라는 없다'는 이미 코엔 형제에 의해 영화로 만들어져 찬사를 받은 바 있다.

신인감독 존 힐코트가 메가폰을 잡은 '더 로드'는 2019년 지구 대재앙 이후 인류의 충격적인 모습을 담은 소설로 '반지의 제왕'의 비고 모텐슨이 아들을 지키기 위해 황폐해진 지국에서 마지막 희망을 찾는 아버지로 출연하며 '몬스터'로 아카데미여우주연상을 수상한 샤를리즈 테론이 엄마 역으로 함께 호흡을 맞췄다.

29일 개봉하는 '시간 여행자의 아내'는 전세계적으로 450만부 이상 팔려나간 오드리 니페네거의 동명 소설을 원작으로 하고 있다. 국내에서는 2006년 소개된 후 영화 개봉을 앞두고 최근 재출간됐다.

영화는 자신의 의지와 상관 없이 시간을 초월해 여행하는 헨리와 그를 평생 사랑하는 클레어의 사랑이야기다. '트로이'의 에릭 바나가 정처없이 시간 여행을 떠나면서 외로움을 느끼는 헨리역을 맡았으며' '노트북'의 레이첼 맥아담스가 여주인공으로 출연한다. 브래드 피트가 제작자로 나서 화제가 된 영화이기도 하다.

올 제천국제음악영화제 개막작이었던 '솔로이스트' 역시 원작이 있다. LA 칼럼니스트인 스티브 로페즈가 줄리아드 음대 장학생이었다 정신분열증으로 노숙자가 된 나다니엘을 인터뷰해 작성한 에세이가 원작이다.

'오만과 편견', '어톤먼트'의 조 라이트 감독이 메가폰을 잡았고 '레이'의 제이미 폭스와 '아이언 맨'의 로버트 다우주니어가 주연을 맡았다.

11월 개봉을 앞두고 있는 '백야행'은 일본 추리문학계의 인기스타 히가시노 게이고의 소설이 원작이다. '용의자 X의 헌신', '비밀' 등 그의 작품은 일본에서 속속 영화화 되는 등 많은 인기를 모으고 있다.

자신의 아버지가 살해된 이후 살인자가 되어버린 남자와 이제는 14년 전 사건의 그늘에서 벗어나 밝은 미래를 꿈꾸는 여자, 그리고 그들의 뒤틀린 운명과 진실을 파헤치려는 형사가 주인공으로 출연한 영화다.

고수와 한석규가 남자 주인공으로 출연하며 여주인공 역을 맡은 손예진의 수위 높은 베드신이 공개되면서 화제가 되고 있기도하다.

추석에 개봉한 영화 '불꽃처럼 나비처럼'은 인기 무협소설가 야설록이 1997년 발표한 소설이다. 명성황후 민자영과 호위무사 무명의 사랑을 스펙터클한 무술 장면과 엮어낸 영화로 야설록은 '남벌' '아마겟돈', '카론의 새벽'등 이현세 만화의 스토리 작가로 활약한 바 있다.

/김미은기자 mekim@kwangju.co.kr

더 로드	지구 대재앙 이후 인류의 충격적인 모습
시간 여행자의 아내	브래드 피트가 제작한 사랑 이야기
백야행	日 추리소설…손예진 파격 베드신 화제

새 영화 호우시절

가슴 떨리는 옛사랑을 오랜만에 만난다면….

'8월의 크리스마스', '봄날은 간다' '행복' 등으로 한국 멜로 영화의 새 장을 연 허진호 감독의 영화다.

건설 중장비회사 팀장 박동하, 중국 출장 첫날, 우연히 관광 가이드를 하고 있는 미국 유학 시절 친구 메이와 기적처럼 재회한다. 두 사람은 금세 그 시절로 돌아가지만 둘의 기억은 다르다. 키스도 했었고, 자전거를 가르

기적처럼 재회한 옛사랑
그 시절 엇갈린 기억
가슴 설레는 러브스토리

쳐 주었다는 동하와 키스는커녕, 자전거는 탈 줄도 모른다는 메이. 같은 시간에 대한 다른 기억을 떠 올리는 사이 둘은 점점 가까워지고 이별 직전, 동하는 귀국을 하루 늦춘다.

미남 배우 정우성이 주인공 동하 역을 맡아 '내 머리 속의 지우개' 이후 오랜만에 멜로 영화에 출연하며 중국 배우 호원원의 청순한 외모가 분위기를 돋운다.

괜더곰으로 유명한 중국 스촨성 청두에서 올 로케이션 촬영했으며 허진호 감독과 소설가 이외수의 아들인 이한얼씨가 공동 각본가이자 조감독으로 참여해 화제가 됐다. 〈12세 이상 관람가〉

/김미은기자 mekim@kwangju.co.kr